

(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)

로마서 11:11~22. 이스라엘 권속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때,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잃게 되었다.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서는 복음과 그에 따른 축복을 이방인에게 주셨다. (40~45분)

주: 이 가르침을 위한 제언은 로마서 9~10장에 대한 제언의 계속이다. 여러분은 **어제 자료의 세가지 요점**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어제 자료의 세 가지 요점을 복습하고 **세 번째 요점**을 읽는다.

요점 3. 이방인들(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들)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.

축복사의 축복에 대해,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받은 축복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 축복사의 축복문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? 축복문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은 "한다면" 이라는 표현이다. 축복사의 축복문에서 이 말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?

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찾아보면서 **교리와 성약 130편 20~21절**을 읽는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개인 또는 일단의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도록 예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왜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가?
- "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" (로마서 9:6)라고 한 바울의 표현이 어떻게 이 교리를 뒷받침하는가?
-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축복을 잃어버리는가?
- 사람들이 복음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유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

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**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.**

"계명을 지키는 일은 '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'으로 기꺼이 행할 때라야 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. 그것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일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?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 시간을 무의식 중일지라도 영속적인 가치가 없거나 여러분이 지상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활동이나 하찮은 것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? 단지 오늘이나 내일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순간 동안만 원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" (리처드 지 스코트, Conference Report, 1997년 4월, 78~79쪽; 성도의 빛, 1997년 7월호, 54쪽)

이스라엘 권속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합당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

바울은 예임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축복을 잃어 버렸다고 가르쳤다. (**로마서 9:31~33; 10:1~3, 16~21; 11:3~10 참조**)

로마서 11장 11~13절을 읽고 또 이제 누가 복음과 그 축복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찾아본다. **로마서 11장 25~31절**을 신속히 읽고 또 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가 시작되었는지를

찾아본다.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했던 **다음 말씀을 읽는다.**

"이러한 방법으로 절정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가르쳐졌다.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졌으며, 그들이 이를 거부한 이후에야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 가운데에 교회의 지부들이 조직되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이 성취되고 있다. 복음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 되었을 때, 그것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알려졌으며 과거의 120년 간 이방인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어 왔다.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며, 단지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. 로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"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"(로마서 11:25)고 말하였다" (조셉 필딩 스미스, 만유의 회복 [1945년], 163~164쪽)

이방인들(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)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순종함으로써, 이스라엘의 권속으로 접붙여지고 또 온전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. 접붙인다는 것은 한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의 가지에 삽입하는 과정이다.

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한다.

- 접붙여진 가지가 원래의 나뭇가지처럼 그 나무의 일부가 될 것인가? (그렇다. 아니다.)
- 원래의 나뭇가지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얻었다면, 접붙여진 나뭇가지는 어디에서 그 영양분을 얻을 것인가?
- 언제, 그리고 어떤 이유로 정원사는 접붙이기를 사용하는가?
- 접붙이기는 나무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가?
- 접붙여진 나뭇가지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?

로마서 11장 14~24절을 읽는다. 성구를 읽으면서 접붙이기 과정을 마음에 새겨 둔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바울은 어떤 영적인 과정을 접붙이기에 비유하였는가?
- 여러분은 접붙이기에서 무엇을 배웠으며, 또 이스라엘의 권속으로 입양된 이방인들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?
- 여러분은 입양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문자 그대로 혈통상 이스라엘의 후손이 받는 축복 사이에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는가?
- 이 접붙이기 과정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에 대해 지니고 계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?

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접붙여진 나무의 뿌리가 되신다. (요한계시록 22:16 참조) 입양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권속으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영양분과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 만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른다면, 주님의 가족으로 접붙여지고 또 주님께서 고르신 가장 좋은 모든 축복이 성약의 일부로서 그들에게 올 것이다.